

지역 소식통

고창군,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고창군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대리점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총 50대(일반가정 40대, 저소득층 10대) 지원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정이며, 지원금액은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으로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노후된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한 가정, 신규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이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보일러는 도시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증현황은 el.korea.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여성 신체활동 명품건강교실 1기 운영

부안군은 신체활동 부족 및 여성호르몬 감소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 대상으로 "2023년 신체활동 명품건강교실"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체활동 명품건강교실은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체질량지수(BMI)순으로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에서 집수를 받아 2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15명 그룹으로 주2회(화, 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의 적정 체중 및 허리둘레 바로 알기, 비만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근력운동 및 생활체조 지도, 개인별 운동 처방 및 운동의 중요성 교육, 나트륨 줄이기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리 실습, 음주폐해예방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사전·사후 기초검사, 체성분 분석, 건강생활실천 성과 측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수준 및 행동 변화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귀농·귀촌인 성공 정착' 돕는다

정읍시, 주택 수리비 등 최대 800만원 지원 농촌 인구 유입 도모·활력 회복 나서

정읍시가 귀농·귀촌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농촌 인구 유입 도모와 활력 회복에 나선다.

시는 귀농인들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억9,800만원을 들여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영농 정착 지원사업,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포함, 보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



이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대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오래된 빈집의 상호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지방 수리 등을 지원한다.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소규모 시설 또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최대 800만원, 2030 결혼 세대는 세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안정적

인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시를 제2의 행복 삼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종합 청렴도 2등급' 쾌거

부안군, 도내 최상위 도약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 인식·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60%, 각 기관의 반부패 청렴 노력 지표 이행 실적과 효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부패사태 감점 등을 종합, 5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부안군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1.5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74.4점보다 7.1점이 높았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72.9점보다 11.9점 높게 나왔다.

부안군은 2021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에서 2022년도에는 종합청렴도 2등급(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권익현군수의 청렴 리더십과 함께 전 직원의 각고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금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해 부안군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였고, 각 부서장은 솔선수범하여 청렴 응원태세,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100%이수,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에 적극 동참하는 등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사이버 청렴교육이수와 부서 청렴리더를 선정하여 내부직원들 간 청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론 및 교육으로 청렴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협의체 33개를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청렴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는 다원하고 창의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일상 속 방역 생활화' 자발적 동참 호소

심덕섭 고창군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심덕섭 고창군수가 '일상속 방역 생활화'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고창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

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3층=밀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밀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동절기 백신접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우암로 지중화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정읍시가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로변에 설치돼 도심 공간을 어지럽히던 각종 가공전선과 통신선을 없애고, 이를 지중화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동초등학교 통학로인 우암로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우암로 지중화 사업 구간은 (구)제일은행부터 동초등학교까지 원도심 약 550m 구간에 시행된다.

지중화 공사에는 시와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ICL글로벌 등 5개 통신사가 참여한다.

시는 지중화를 위해서는 굴착공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 차량 통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교적 한가한 명절 이후로 공사 계획을 잡았다.

따라서 오는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 개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요청

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4명,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 위촉직 5명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임기는 2년으로 고창군의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 안정 정책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위기 수준 대응 및 물가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달라지는 경제 및 물가 관련 주요 사업을 다루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 개

정안(2023. 1. 1.시행)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및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자발적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홍보를 당부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여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생활밀착형 독서정원' 조성 협의회

정읍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 도시 조성을 위해 상동시민공원 부지를 활용, 생활밀착형 독서정원을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상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시립 중앙도서관 뒤편(벚꽃로 511)에 조성된 상동시민공원



부지에 녹색정원의 정취를 느끼며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28일 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독서정원)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